

# 2019년 IPO 결산

2019년 기업공개(IPO) 시장은 총 75개 기업이 신규 상장해 약 3조 8천억 원의 공모 금액을 기록하며 마무리됐다.

코스닥 기업의 꾸준한 증시 입성으로 공모 기업 수는 풍부했고, 공모 규모는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2018년에 비해 1조 원 가량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4분기에 공모 기업이 집중되면서 전체 IPO 시장의 불륨이 확대됐고, 다양한 방식의 특례상장제도를 통한 증시 입성도 눈에 띄었다.

본 자료는 2019년 상장일 기준 IPO(스팩 제외) 시장 현황을 파악한 내용으로 한 해 IPO 시장 이슈를 점검하고, 2020년 시장 흐름을 전망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019년 12월 26일  
IR큐더스 이진영 수석



# 2019년 IPO 결산

2019. 12.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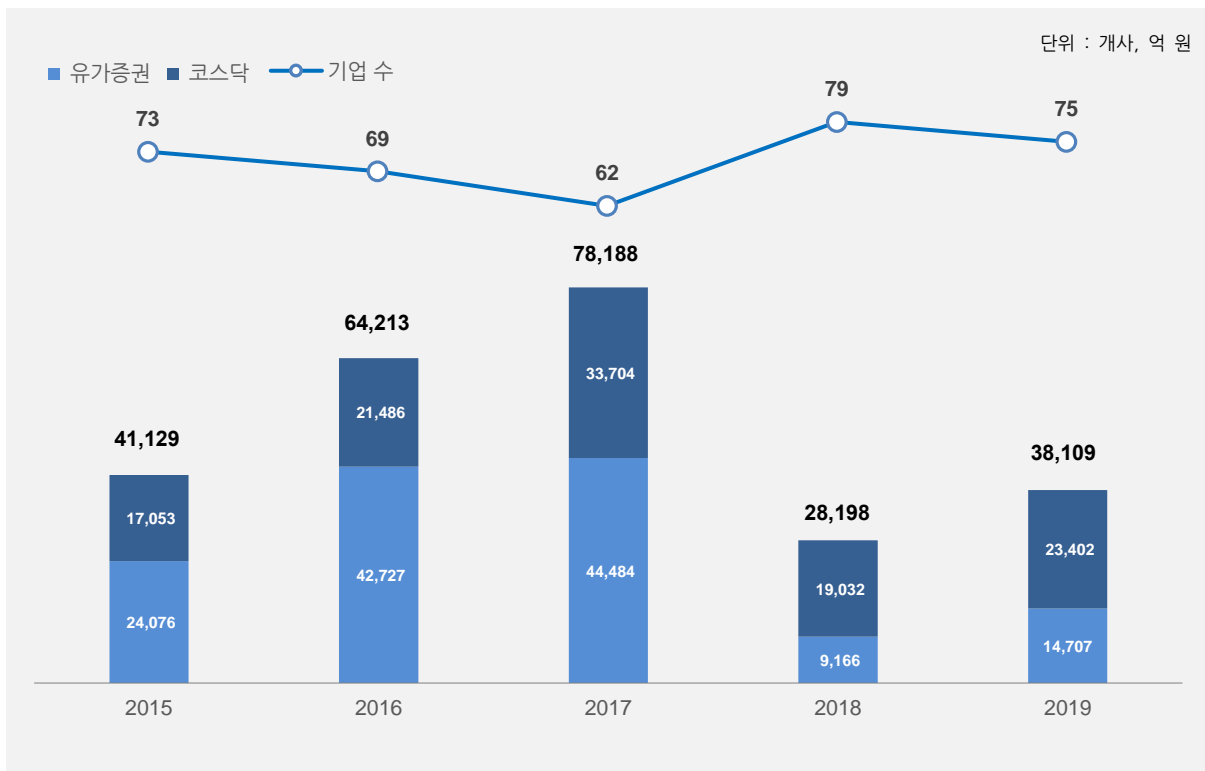
## 1. 2019년 공모 기업 수 75개사, 규모 3조 8천억 원... 4분기 활황

2019년 IPO 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의 수는 유가증권 9개사, 코스닥 66개사 등 총 75개 기업이었고, 공모 규모는 3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2019년 신규 상장 기업 수는 2018년 79개사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공모 규모는 2013년 이후 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2018년 보다 1조 원 가량 상승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롯데리츠, 한화시스템 등 중대형급 IPO 기업들이 신규 상장하며, 전체 시장 확대를 주도했다. 2018년 9천억 원 수준의 공모 규모를 기록했던 유가증권 시장도 60% 증가하며 1조 4천억 원을 상회했다.

하반기 IPO 쏠림 현상은 2019년에도 이어졌다. 신규 상장기업의 46%(35개사)가 4분기에 집중됐으며, 이 기간 공모규모는 2조 원에 육박했다. 이는 2019년 전체 IPO 공모 규모에 52%에 달하는 수치다.

[최근 5개년(2015~2019) IPO 기업 수 및 공모 규모]



주 : 상장기업 수는 신규 상장일 기준,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 제외  
자료 : 한국거래소, IR KUDOS

## 2. 특례상장 확대... 다양한 업종에서 증시 입성 이어져

2019년 IPO 시장은 다양한 형태의 특례상장제도를 통한 증시 입성이 눈에 띈다. 바이오 기업 중심의 기술특례상장 외에 기업의 비즈니스에 따라 상장 트랙이 다변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사업모델기반 방식의 플리토(플랫폼), 캐리소프트(컨텐츠) / 성장성 추천제를 통한 라닉스(반도체), 올리패스(바이오), 라파스(바이오), 신테카바이오(바이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바이오) / 테슬라 요건의 제테마(바이오), 리메드(바이오) / 소부장 특례 1호 메탈라이프(소재부품) 등이 그 예다.

각종 약재로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얼어 붙었지만, 바이오 업종 기업들의 IPO 점유율은 올해도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신규 상장 기업 중 바이오 관련 기업(의료기기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은 25%(19개사)에 달했다. 대어급으로 주목받는 SK바이오팜이 2020년 상반기 상장 추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연됐던 기업들이 가세하며 2020년에도 바이오 업종의 기업공개는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S/W(핀테크), 스마트팜, 신재생에너지, 콘텐츠 등 그동안 IPO 시장에서 보기 드물었던 업종들도 다수 선보였다.

### [2019년 IPO 상장 기업 업종별 분류]

번호	종목명	업종	번호	종목명	업종
1	웹케시	S/W	39	라닉스(성장성)	반도체
2	노랑풍선	여행	40	올리패스(성장성)	바이오
3	이노테라피(기술)	바이오	41	녹십자웰빙	바이오
4	천보	2차전지	42	아톤	S/W
5	셀리드(기술)	바이오	43	라운피플	반도체
6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44	팜스빌	식품
7	드림텍	IT	45	엔바이오니아(기술)	기계
8	미래에셋벤처투자	VC	46	케이엔제이	기계
9	이지케어텍	S/W	47	캐리소프트(사업모델)	영상콘텐츠
10	지노믹트리(기술)	바이오	48	지누스	가구
11	현대오토에버	S/W	49	롯데리츠	부동산
12	아모그린텍(기술)	연료전지	50	티라유텍	S/W
13	에스엔케이	게임	51	미디어젠(기술)	S/W
14	컴퍼니케이파트너스	VC	52	자이에스앤디	건설
15	수젠텍(기술)	바이오	53	아이티엠반도체	반도체
16	마이크로디지털(기술)	바이오	54	라파스(성장성)	바이오
17	가스텔바작	의류	55	한화시스템	방위산업
18	암타바이오(기술)	바이오	56	제테마(테슬라)	바이오
19	에이에프더블류	2차전지	57	에스제이그룹	패션
20	펄텍코리아	화장품	58	현대에너지솔루션	신재생
21	아이스크림에듀	교육서비스	59	우양	식품
22	세틀뱅크	S/W	60	코리아에셋투자증권	금융
23	플리토(사업모델)	플랫폼	61	씨에스베어링	신재생
24	에이스토리	영상콘텐츠	62	티움바이오(기술)	바이오
25	대모	건설기계	63	센트랄모텍	자동차
26	윌링스	신재생	64	노터스	바이오
27	세경하이테크	전자부품	65	코리아센터	S/W
28	한국바이오젠	화학	66	엔에이치프라이미츠	부동산
29	슈프리마아یدی	전자부품	67	리메드(테슬라)	바이오
30	덕산테크피아	화학	68	태웅로직스	운송서비스
31	코윈테크	기계제조	69	제이엘케이인스펙션(기술)	바이오
32	그린플러스	스마트팜	70	신테카바이오(성장성)	바이오
33	레이	의료기기	71	메드팩토(기술)	바이오
34	에스피시스템스	기계제조	72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성장성)	바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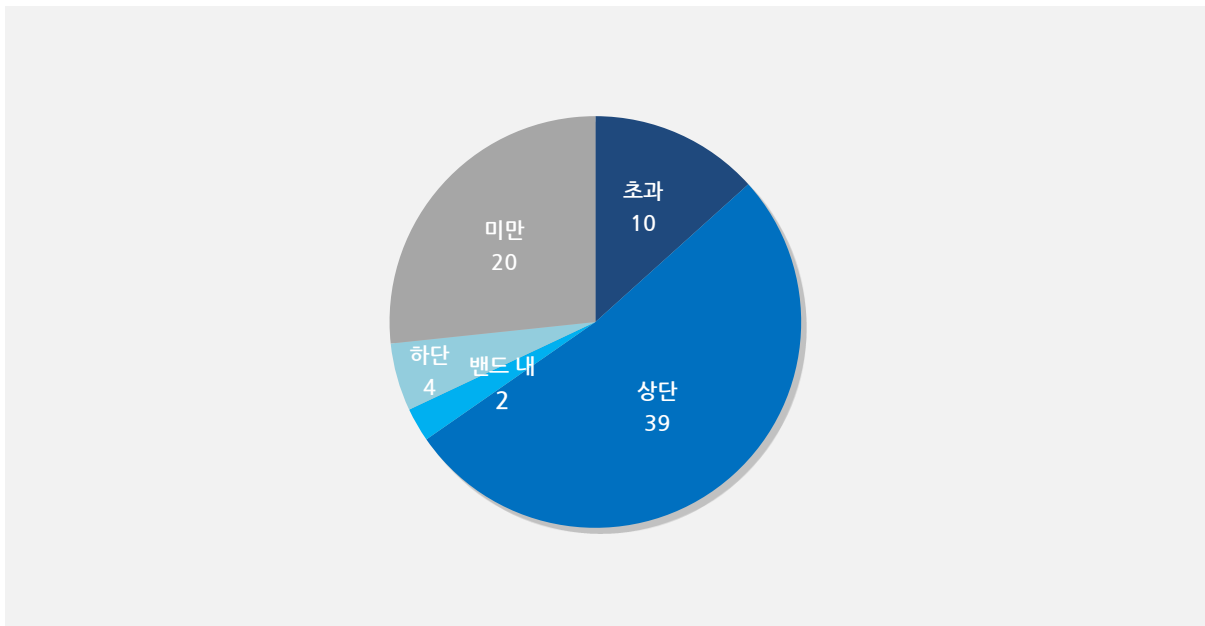
35	나노브릭(기술)	화학	73	메탈라이프(소부장)	소재부품
36	마니커에프앤지	식품	74	피피아이	반도체
37	네오크레마	식품	75	천랩(기술)	바이오
38	한독크린텍	기계			

주 : 1) 종목 순서는 상장일 기준  
 2) 업종은 거래소 업종 및 주요제품 참고  
 3) 붉은색 표시된 기업은 특례상장기업(특례상장 방식 괄호 표기)  
 자료 : 한국거래소, IR KUDOS

### 3. 공모밴드 상단 이상 기업 65.3%, 하단 미만 26.6%… 극명하게 갈린 투심

2019년 상장 기업 75개사 중 밴드 상단 초과 기업은 10개, 상단 39개, 밴드 내 2개, 하단 4개, 하단 미만 20개로 집계됐다. 전체 상장 기업의 65.3%가 상단 이상으로 공모가를 확정했다. 2018년과 비교해 밴드 상단 이상으로 공모가를 확정된 기업 수가 크게 늘며, 비중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18년 공모밴드 상단 이상 가격 결정 기업은 총 39개사로 수요예측을 실시해 신규 상장한 기업의 50% 수치다. 반면, 밴드 하단 미만으로 공모가를 확정된 기업도 26.6% 수준인 20개사로 기관 투심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2019년 IPO 기업 공모가 확정 현황]



자료 : 한국거래소, IR KUDOS

IPO 시장 성수기라 일컬어지는 4분기 역시 투심은 양분됐다. 4분기에 수요예측을 진행한 34개사 중 공모 밴드 상단으로 공모가를 확정된 기업은 18개사, 하단 이하에서 결정한 기업은 14개사(하단 3개사, 미만 11개사)로 수요예측에 따른 옥석 가리기가 이뤄졌다. 특히 IPO 시장이 다소 침체된 흐름을 보이면서 연말로 갈수록 투자심리는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 [2019년 4Q 수요예측 진행 기업 공모가 확정 결과]

단위 : 원

기업명	시장	수요예측일	공모 밴드	공모가	결과
아톤	코스닥	09.30 ~ 10.01	30,000 ~ 43,000	43,000	상단
롯데리츠	유가증권	09.23 ~ 10.02	4,750 ~ 5,000	5,000	상단
라운피플	코스닥	10.01 ~ 10.02	14,000 ~ 17,000	14,000	하단
팜스빌	코스닥	10.01 ~ 10.02	11,000 ~ 14,000	14,000	상단
엔바이오니아	코스닥	10.07 ~ 10.08	8,200 ~ 10,300	8,200	하단
케이엔제이	코스닥	10.10 ~ 10.11	8,400 ~ 11,000	11,000	상단
캐리소프트	코스닥	10.14 ~ 10.15	7,000 ~ 9,000	9,000	상단
미디어젠	코스닥	10.14 ~ 10.15	9,400 ~ 10,600	10,600	상단
지누스	유가증권	10.16 ~ 10.17	80,000 ~ 90,000	70,000	미만
티라유텍	코스닥	10.16 ~ 10.17	10,550 ~ 12,050	12,050	상단
자이에스앤디	유가증권	10.21 ~ 10.22	4,200 ~ 5,200	5,200	상단
아이티엠반도체	코스닥	10.24 ~ 10.25	23,000 ~ 26,000	26,000	상단
라파스	코스닥	10.25 ~ 10.28	24,000 ~ 29,000	20,000	미만
한화시스템	유가증권	10.21 ~ 10.30	12,250 ~ 14,000	12,250	하단
제테마	코스닥	10.30 ~ 10.31	36,000 ~ 48,000	21,000	미만
에스제이그룹	코스닥	10.31 ~ 11.01	32,000 ~ 38,600	38,600	상단
현대에너지솔루션	유가증권	11.04 ~ 11.05	24,000 ~ 28,000	18,000	미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코스닥	11.04 ~ 11.05	8,000 ~ 10,000	10,000	상단
씨에스베어링	코스닥	11.04 ~ 11.05	7,400 ~ 8,400	8,400	상단
우양	코스닥	11.05 ~ 11.06	3,800 ~ 4,200	4,200	상단
티움바이오	코스닥	11.05 ~ 11.06	16,000 ~ 20,000	12,000	미만
센트랄모텍	유가증권	11.07 ~ 11.08	5,000 ~ 6,000	6,000	상단
노터스	코스닥	11.07 ~ 11.08	17,000 ~ 20,000	20,000	상단
엔에이치프라이미츠	유가증권	11.13 ~ 11.14	5,000 ~ 5,000	5,000	내
코리아센터	코스닥	11.18 ~ 11.19	24,000 ~ 27,200	18,000	미만
리메드	코스닥	11.19 ~ 11.20	14,500 ~ 16,500	13,000	미만
태웅로직스	코스닥	11.21 ~ 11.22	3,700 ~ 4,500	4,500	상단
제이엘케이인스펙션	코스닥	11.26 ~ 11.27	11,000 ~ 14,500	9,000	미만
신테크바이오	코스닥	12.02 ~ 12.03	15,000 ~ 19,000	12,000	미만
메드팩토	코스닥	12.05 ~ 12.06	34,000 ~ 43,000	40,000	내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코스닥	12.09 ~ 12.10	70,000 ~ 80,000	60,000	미만
메탈라이프	코스닥	12.09 ~ 12.10	10,500 ~ 13,000	13,000	상단
피피아이	코스닥	12.10 ~ 12.11	6,000 ~ 7,000	7,000	상단
천랩	코스닥	12.12 ~ 12.13	63,000 ~ 78,000	40,000	미만

주 : 종목 순서는 수요예측일 기준  
 자료 : 한국거래소, KIND, IR KUD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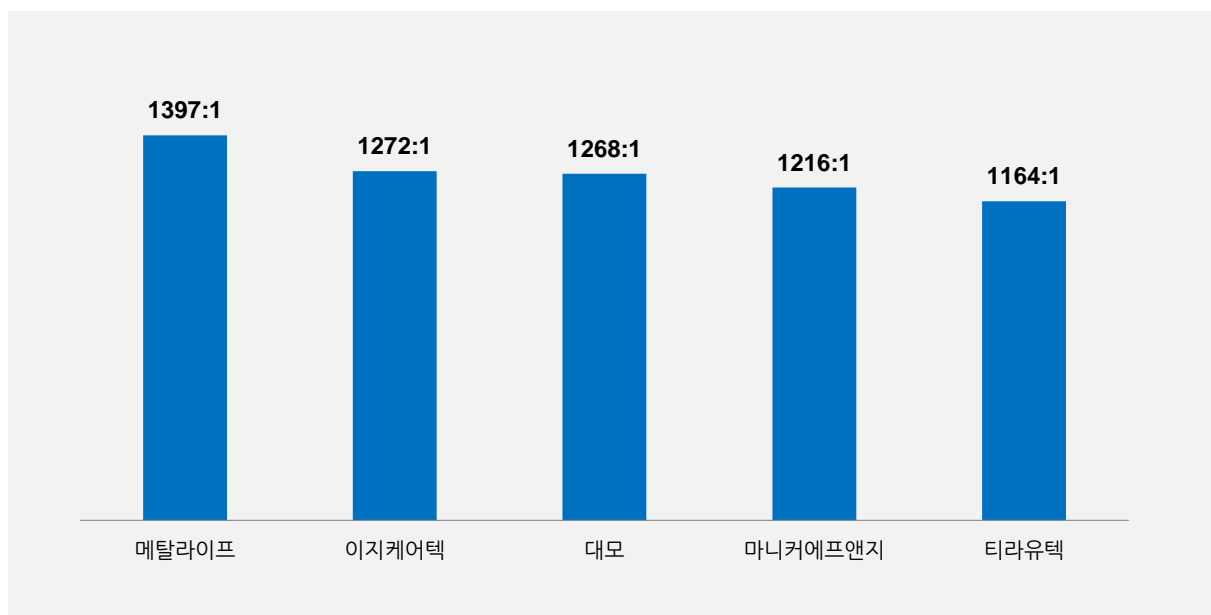
#### 4.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패스트트랙 1호 ‘메탈라이프’ 최고 청약 경쟁률 달성

2019년 청약경쟁률 1000:1 이상이 몰린 기업은 총 12개사였고, 비교적 다양한 업종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투심이 분산됐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의 상장 예비심사 기간을 단축해주는 소부장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메탈라이프가 2019년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향후 소부장 기업의 IPO 추진 확대를 점쳐볼 수 있다. 메탈라이프 외에 청약경쟁률 상위 기업들의 업종을 보면 소프트웨어, 건설기계, 식료품 등 비교적 다양했다.

반면, 한 자릿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 부진을 보인 14개 기업 중 12개 기업이 하반기에 집중됐다. 증시 침체와 하반기 IPO 쏠림 추세에 맞춰 공모주에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청약 경쟁률 상위 5개사]



자료 : 한국거래소, IR KUDOS

#### 5. 신규상장기업 공모가 대비 평균 4.87% 상승

2019년 IPO 기업의 공모가 대비 평균 추가상승률은 12월 26일 종가 기준으로 4.87%를 기록했다.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66개 기업 중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한 두 개 기업을 제외한 64개 기업은 공모가 대비 평균 2.86% 상승, 유가증권 시장 신규 상장사(9개사, 19.15%)에 비해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2019년 공모가 대비 상승률]

구분	유가증권	코스닥	전체
공모가 대비 상승률(12월 26일 종가 기준)	19.15%	2.86%	4.87%

주 : 신규 코스닥 상장 기업 중 펄텍코리아, 세경하이테크는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발생으로 제외

자료 : 한국거래소, IR KUDOS

## 6. 2020년 IPO, 양적·질적 확대 기대감 UP

2019년 기업공개(IPO) 시장은 업종 다변화와 함께, 최근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침체됐던 2018년 공모 규모를 뛰어넘어 반등을 이뤄냈다. 기술특례 상장 이외에 사업모델·소부장 등 신규 특례상장 방식이 고루 활용되며, 다양한 상장 트랙을 선보이기도 했다.

2020년 IPO 시장은 공모 규모 면에서 큰 폭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시장 상황이라는 변수가 존재하겠지만, 2019년에 찾아볼 수 없었던 조 단위 규모의 대어급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IPO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청구를 완료한 SK바이오팜을 비롯해, CJ헬스케어, 현대카드 등 대기업 계열의 대형 기업들이 IPO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대어급으로 기대를 모았다 상장을 철회한 기업들의 재추진 여부에 따라, 공모 규모의 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새로운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한 이색 업종의 등장도 기대되고 있다. 기술·성장성·사업모델 등 특례상장 트랙이 다변화 되면서 성장형 기업의 증시 입성 문턱이 보다 낮아졌다는 평가다.

또한 2019년 한해 냉랭했던 바이오 업종의 투심 회복 여부도 주목할 부분이다. 잇따른 약재가 쌓이면서 바이오 업종에 대한 보수적 접근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2020년 바이오 최대어인 SK바이오팜의 평가 여부에 따라 바이오 섹터가 부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